

東과 西 나누지말자

얼마전 조계종 분규가 한창일 때다. 분규 당사자인 모측 승려들이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협박성 로비를 하고 다녔다. "이번에 잘못하면 부산·경남 불교도들은 본격적으로 반(反)정부로 돌아설 것"이라는 내용이였다.

실제로 분규기간 동안 조계종 주변에는 분규 당사자의 지역 연고와 관련한 이런 저런 설들이 난무했다. 수행집단 내분마저도 지역간 파워 게임으로 해석되고 이를 교묘하게 포장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시도도 난무했다. 속계의 아비규환을 무색케 하는 음모론이 춤을 추었다.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 문제가 증폭에 이르렀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같은 값이면 고향 물 맛이 더 좋다고 한다. 인지상정이다. 부처님 인들 고향 까마귀가 더 반가운 마음이 왜 없겠는가.

문제는 이 소박한 애향심이 배타적 집단주의로 변질된 데 있다. 보는 눈리와 합리적 이성 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한다. 따지고 보면 지역감정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정치인들에게 있다.

지역감정을 악용한 최초의 정치인으로는 박정희씨를 들 수 있다. 쿠데타, 유신독재 그리고 경제개발 등 그의 공과를 놓고 이론이 분분하지만 집권연장을 위해 그가 동원했던 지역감정 조장행위는 피할 수 없는 악업이었다. 그 악업은 이후 군부독재 세력의 집권 연장 수단으로 대물림됐다.

지금 국회에서는 IMF 환란 원인을 규명하는 청문회가 한창이다. 당시 재경원 장관,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기아그룹 총수 등 소위 환란 주역들이 불러나와 흥역을 치르고 있지만 넓게 보면 IMF는 특정 관료나 통치자의 무능만 탓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해방 이후 누적돼 온 우리 사회의 총체적 업보라고 할 수 있다. 그 총체적 업보 속에는 지역감정이라는 고질병도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마산 구미 등지를 돌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원초적 지역감정을 촉발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IMF 이후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엄격히 말하면 그 고통의 원인이 정치인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고요에게 쥐를 외면하라는 것 만뿐이나 어려운 주면이 아니겠는가.

97년 12월의 정권교체로 우리는 민족적 지역감정을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특정지역의 '왕따', 그리고 특정지역의 배타적 집단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정권을 계속 재창출할 수 있다는 통식이 깨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영남지역 장외집회는 정권 교체로 인한 영남지역 사람들의 상실감을 교묘히 파고드는 술책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영남인들의 상실감 자체가 과욕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과거 인사,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것을 놓친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허하게 나온 발상이겠지만 지역감정 조장을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생각도 도기로 흐르는 물을 막겠다는 발상이다.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 수차 천명해 온대로 차별없는 정책의 실천만이 해결책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오해가 불식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인지상정을 벗어난 감정은 어차피 평상심이 아니다. 그것은 봄 눈처럼 적절할 환경이 조성되면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다. 모두가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환경이다.



김재성
 <대한매일 정치팀장>

지역 감정의 폐해
 수십년간 경험
 유일한 해결책은
 차별없는 정책실현

'황혼이혼' 사회문제로... '검은머리 파뿌리' 옛말

"부부는 섬김과 존경의 관계"

'황혼이혼'이 우리 사회의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해 이시형(71) 김창자(76) 두 할머니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을 제기한 본인들은 "지나간 세월은 몰라도 남은 인생은 '맘 편히 밥먹고 잠들고 싶습니다'며 합소 및 상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여성계가 공청회를 열어 '황혼이혼'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개인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여성의 인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고령인데다, 이들이 결혼한 당시의 가치관을 수용해야 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 남편의 탄원 등의 이유를 들어 '두 사람에게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찬반논쟁이 뒤따르고 있다. 하승수변호사는 "젊은 여성이라면 충분히 이혼관계의 파탄이라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유독 여성노인에게만 이혼을 허용치 않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재호변호사는 "당사자들을 둘러싼 주변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결까지 시비거리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은 자녀양육, 재산분할 등 사회문제로 직결된다. 더욱이 경제적 어려움과 기력상실한 노인들의 이혼은 홀로 된 노인의 부양이라는 또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의 이혼 문의가 최근 들어 급증했으며, 97년 1백건을 넘지 않았던 것이 지난 해는 120건으로 대폭 늘었다.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과 이혼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80% 이상은 여성의 이혼 상담이다.

황혼이혼을 여성이 요청하는 이유는 이시형 김창자씨의 사례에서 밝혀진다. 김씨는 이혼소송 제기 이유를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강요 △결혼직후 교사직을 그만두기를 종용하는 등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집안을 다스려 왔으며 △고령이 된 뒤 아내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고 의심하며 추



◇ '황혼이혼'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양로원의 노인위안 잔치.

태를 부린 사실을 꼽았다. 이씨도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였다. 모두 결혼 초부터 남편의 가부장적인 권위에 눌려 살아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부부는 돌이켜서 하나이다. 가정은 존경과 섬김의 도량이다. 부처님은 부부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아내는 마땅히 열네 가지 일로 남편을 섬겨야 한다. 행동을 착하게 하며, 선을 실천해 이루며, 지출 아끼기를 세밀히 하며, 새벽에 일어나며, 밤늦게 자며, 반드시 일을 이루며, 남편을 대접하며, 남편에게 인사하며, 말과 어세를 부드럽게 하며, 말이 순하며, 자리를 바로 하며, 음식을 깨끗이 하며, 보시를 잊지 않으며, 남편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남편은 다섯 가지 일로 그 아내를 존경하여 부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바른 마음으로 존경하며, 아내의 뜻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으며, 딸 여인에 대한 애정을 지니지 말며, 때에 맞추어 의식을 주며, 때로 보배의 장신구를 주는 일이다."(선생자경)

인터넷 이용자는 2005년 3억4천만 명에 달할 것이며 유럽보다 아시아에서 더 많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소재 컴퓨터 분석회사인 컴퓨터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터넷 이용이 가장 빨리 확산될 것이라며 2005년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1억1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이용자가 2002년에는 유럽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지금부터 5년 뒤 7천7백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아프리카로 오는 2005년에도 3백만 명에 불과할 것이며 남미는 8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라니"를 부적으로 팔다니 서울 인사동 화랑 부적전시회 '물'

'재해맞이 부적전시회'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인사동의 한 고미술품 전문화랑이 기획한 이 전시장에서는 새로 제작한 부적을 1장에 3천원씩 판매하기도 한다. 입시철을 반영하듯 합격부가 관람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시품종에는 '무구정광대다라니'(7년)와 금강경 등도 포함되어 있어 '자칫 부적이 불교신앙의 한 형태인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하는 불자들이 많다. 지니기만 하면 재물이 소멸되고 복을 받는다는 부적과 불교는 거리가 멀다. 부처님께서 최후의 유언으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와 법에 의지하라(自燈明 法燈明)고 가르쳤다.

가톨릭의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자본주의의 해악을 경고하는 권고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황은 1월 23일 멕시코 방문길에 자본주의의 착취성과 사악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표.

교황은 권고문을 통해 "이익과 시장의 법칙만을 강조하는 제도인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원의 공평한 분배 등이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신학자들은 교황의 권고문을 '새로운 종류의 해방신학'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생활정보

미국 경제스타들과의 만남

방송 EBS-TV에서는 4일~11일까지 3회에 걸쳐 '다큐멘터리 특집-미국 경제스타들과의 만남'을 저녁 6시 45분부터 25분간 방영한다. △4일, 반 인플레이션 투사-폴 볼커(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 △5일, 월가의 진실이 된 사나이-피터 린치(펀드매니저) △11일, 마케팅의 신화-롤랜드(플레트츠사 회장).

요목·꽃묘 무료 배포

생활 올해 1월1일 이후 딸을 낳은 부모에게 기념식수용 나무를 나눠준다. 서울시가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올해 여아를 낳은 부모 2천쌍에게 요목을 무료로 나눠 주기로 한 것. 접수기간은 3월1일~5월31일. 서울시는 또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이 통·반단위로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4월초까지 나무와 꽃묘를 배부해준다. (02)3216-4242

소식이 장수의 비결

건강 먹는 것을 즐기야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의 로이 월포드박사는 22일 미국과학진흥협회 연례회의에서 연구발표를 통해 적게 먹은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평균수명의 절반을 더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겨울철 황사 손발 깨끗이

황사(黃砂) 현상이 올해 처음으로 25~27일 3일 동안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상한동으로 불릴까지 황사 발생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왕따' 상담전화 운영

상담 한국 청년의전화는 '왕따'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운영한다. 27명의 상담원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담에 응한다. (02)7909-114

결약의 지혜

린스대신 김빠진 맥주
 상한 우유로 가구 광택

부산 동래구청은 최근 '생활아이디어 모음' 사례집으로 엮어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IMF시대 절약형의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 빠진 맥주를 린스로 대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리나 병장고 등을 닦으면 때와 악취를 제거할 수 있고 전골이나 불고기를 요리할 때 넣으면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식물향을 닦아주면 입사귀가 싱싱해진다.

또 우유가 상했는지를 알려면 우유를 병수에 몇방울 떨어뜨려서 물에 퍼져 흐려지면 상한 것이고 아래로 가라앉으면 상하지 않은 것이다.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
 우수통화품질 입증기념

"PCS 016 + Free & Free 대축제"

최신 PCS폰 무료제공 내역
 SPH-4700, LGP-6200, G2-F31/F33CM : 무상(가입비 분납)
 HGP-7000(폴터) : 71,500원(가입비 분납)

▶ 가입조건
 FREE 200 요금, 신용카드 / KT 합산,
 정보서비스 무조건 선택(6개월이상 변경불가)


삼성 SPH-4700



최대 420분 연속통화/125시간 통화대기
 매니저기능
 한글/영문 SMS서비스 기능
 바로 전화걸기
 전자계산기/스톱워치
 대화형 문자정보서비스 지원

크 기 116×45×23mm
 무 게 105g
 연속통화 배터리M 240분
 배터리L 420분


LGP-6200F



작고 단단한 사이언
 자동응답기능
 독특한 전화벨소리
 길어진 배터리 사용시간
 말로가는 음성인식은 기본
 자동조명기능
 지역번호 자동다이얼

크 기 107×45×25mm
 무 게 89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M 130~140분
 배터리L 260~300분

한화 G2-F31



현PCS중 최소형
 한화의 새로운 PCS-F31
 Sporty하고 세련된 디자인
 초대형 화면 표시창
 초경량 PCS
 예절모드
 일정관리

크 기 107×43×20mm
 무 게 77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0분
 배터리L 210분

■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소풍물 담당자 앞 ·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